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3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서천호 · 유상범
김장겸 · 박충권 · 조경태
조지연 · 박덕흠 · 주진우
이종배 · 최형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함)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, 시공사 등(이하 “시공사등”이라 함)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사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정비사업 시공사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26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